■ 해남·영암·강진 상가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극심

학원버스 도로 한가운데서 하차 '아찔'

12일 해남읍 상가 밀집 지역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 차량이 불법 주차돼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해남과 영암, 강진 등 전남 서부권 지역이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주차단속에 소극적이어서 교통 체증이 되풀이 되고 있다.

12일 오후 4시 상가 밀집 지역인 해남읍 천변교~광주은행 4거리 일대는 2차선 양쪽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운전 경력 2년차인 이모(여·35·해남읍)씨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도로가 너무 혼잡해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면서 "길은 좁고 차량은 많고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강진과 영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진읍에서 대표적인 교통 혼잡구역인 버스터미널 앞 도로와 뒷편 상가지역 등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도로 정체를 빚고 있다. 특히 상가가 몰려있는 골목길의 경우 양쪽으로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골목마다 꼬리문 주차 행렬 '몸살'

단속 해야할 경찰차도 버젓이 불법주차

식당이나 상가에 납품할 물건을 싣고 온 트럭들이 도로 정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상등을 켠 채 1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박스를 내리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또 일부 학원 버스들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도로 한 가운데에서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면서 사고 일보직전의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교통법규를 지도·단속해야 할 경찰차량 마저 주차장을 외면한 채 주차금지·견인구역에 버젓이 불법 주차를 해놓고 있었다.

해남군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차선 도로 양쪽에 주차구역을 설치, 격일제로 홀·짝일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암지역도 군청 앞 상가 밀집 지역에 설치한 3차선 가변차로 중 2개 차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들어차 1차로로 양 방향 차량들이 교대로 통행하면서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인력난과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일 현재 해남군과 강진군은 2명의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올해 단속 건수는 각각 40건과 60건에 불과하다. 일주일에 3~4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영암군의 경우는 계도차원과 주민민원을 이유로 들어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없다.

/박진표기자 lucky@

"교사들도 경쟁 의식 가져야"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 시·군 교육청 순방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이 도내 22개 시·군 교육청 권역별 순방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장흥교육청에서 있은 장흥·보성·강진·영암·완도 등 중부권 순방에서 새정부 교육정책에 맞게 실용기반 교육정책, 교육자치정신 내실화, 교원의 선의경쟁, 중앙의존에 대한 관행탈피를 강조했다. 〈사진〉

또 "최대한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권이 보장된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며 "교원들도 이제는 '교육 기업의 식'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12일 화순(담양·장성·구례교육청)과 13일 순천(광양·여수·고흥교육청)에 이어 14일 목포에서 해남·진도·신안교육청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와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함평 나비·곤충 엑스포 도우미 유니폼 확정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행사 도우미 유니폼 2종이 확정됐다. 도우미 유니폼은 엑스포 소재인 나비와 곤충, 꽃을 상징할 수 있는 화사한 이미지가 반영됐다. 유니폼은 밝고 화사한 화이트와 핑크, 레드 등의 메인 컬러에 나비 날개 느낌의 칼라, 튤립과 꽃봉오리 모양의 스커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도우미 유니폼은 엑스포 도우미 의상 제작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서 디자인했다"며 "기능과 디자인면을 모두 고려해 확정한 유니폼이어서 도우미들이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기간 동안 안내데스크, 방송센터 내레이터, 통역 등 각 부문별로 48명의 도우미가 현장에 배치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한국 산림경영인협회 하문섭 회장 선출

독림가인 하문섭(73·화순읍 삼천리)〈사진〉 씨가 지난 6일 열린 산림경영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사)한국 산림경영인협회 제 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 회장은 전남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960년부터 화순군 모후산에 126만㎡의 산림을 조성하는 등 40여년간 육림에 헌신해왔다.

하 회장은 고로쇠 수액과 장뇌삼 등의 임산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지난 2003년 산림사업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포상인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산들촌 등 친환경 농산물 4개 업체

전남도와 65억 투자협약 체결

(주)산들촌 등 4개 친환경 농산물 가공· 농자재 생산업체가 전남도에 65억원을 투자한다.

전남도는 12일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주)산들촌 차민석 대표, (주)엘번 최민철 대표, (주)고토 김도형 대표, (주)성원산업 김완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6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산들촌은 나주시 일원 6천600㎡에 30억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주)엘번은 나주시 다시면 1만6천520㎡에 15억원을 투자해 천연규석을 활용한 친환경 토양개량제 생산 공장을 세우고, (주)고토도 다시면 1만4천800㎡에 10억원을 들여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한다. (주)성원산업은 화순읍 4천620㎡에 10억원을 투자해 볍씨 발아기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주)산들촌도 나주시 일원 6천600㎡에 30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신품종 장미 '해도지' 개발

전남도 농업기술원

흰가루병 등에 강한 신품종 장미 '해도지〈사진〉'가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기광연 화훼육종 연구팀은 최근 신품종 장미 '해도지'를 개발, 품종보호 출원했다.

이번에 개발한 '해도지' 품종은 흰가루병에 강하고 절화(切花) 수명이 길며, ㎡당 수량이 167본으로 다수확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원은 농가 실증 재배를 통해 신품종의 품질·시장성·경제성 등을 정밀 검토해 농가보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한마음·이노센스 등 신품종 장미 10여 종을 개발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100여 농가가 94ha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종이없는 사무실 만들기'

화순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화순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종이없는 사무실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온라인 결재 및 보고시스템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보관하는 관행을 일선 업무현장에서 추방,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전자결재 시스템상에 '메모 보고란'을 신설, 결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매주 월·목요일에 실시하는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자료도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빔 프로젝트나 LCD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복사나 인쇄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투명성도 크게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군민의 상' 후보자 접수

담양군·곡성군

담양군과 곡성군이 '군민의 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담양군은 오는 5월 3일 군민의 날을 앞두고 군민의 상 수상 대상자 및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

곡성군도 문화예술과 교육 사회복지·환경·산업경제·체육 공공복리 부문 등 5개 분야에 걸쳐 본상 1명과 부문별 장려상 1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